게임·IT





PC 시대를 풍미한 핵심 지적재산권(IP)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웹젠의 신작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왼쪽)과 넥슨이 '피파'를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 게임 '피파모바일'. 사진제공 | 웹젠·넥

'뮤온라인' 장점만 쏙…'뮤 아크엔젤' 내일 출격

원작 주요 콘텐츠·아이템 등 재현 넥슨 '피파모바일' 6월 10일 오픈 카트러쉬+·A3 등 장기흥행 나서

PC 시대를 주도했던 핵심 지적재산권 (IP)들이 모바일 시대에도 게임 시장을 이끌고 있다.

'리니지'형제가 모바일 시장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A3: 스틸얼라이브'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등 새롭게 등장한 게임들이 그 뒤를 추격하고있다. '뮤 아크엔젤'과 '피파모바일' 등 새경쟁작들도 출격 채비를 마쳤다.

25일 구글플레이 기준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에는 유명 인기 IP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수 올랐다. 1위를 다투고 있 는 '리니지2M'과 '리니지M'이 대표적이 다. 여기에 최근 출시된 게임들도 엄지족 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레이싱게임 '카 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5위에 랭크됐 다. 유저들 사이에서 완성도 높은 게임 성이 입소문을 탄 결과다. 캐주얼 레이 싱 게임으로선 이례적인 성과이기도 하 다. 이 게임은 2000년대 '국민게임'으로 통한 넥슨의 인기 PC온라인 타이틀 '카 트라이더'를 기반으로 한다. 넥슨은 31일 유명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카트라이더 리그 선수 등이 출전하는 이벤트 대회 '카 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슈퍼 매치'도 선보 일 예정이다.

앞서 3월 넷마블이 선보인 'A3: 스틸 츠는 물론, 캐릭터 성장 곡선과 아이템 획

얼라이브'는 25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7위를 지키며 장기흥행 모드에 돌 입했다. 2002년 출시돼 큰 인기를 누린 넷마블의 PC온라인 타이틀 'A3'를 모바 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배틀로얄과 다 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접목 한 융합장르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넷 마블은 게임의 배틀로얄 리그 첫 정식 시 즌을 진행하는 등 e스포츠화도 추진하고 있다

새 경쟁작들도 기지개를 켠다. 웹젠의 신작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은 27일 서 비스를 시작한다. 2000년대를 풍미한 원 작 PC온라인게임 '뮤 온라인'의 장점들 을 분석해 모바일플랫폼에 옮겨온 MM ORPG다. 원작 게임시스템과 주요 콘텐 차는 물론 캐리던 성장 고서과 아이템 회 득 방법 등 대부분의 요소를 동일하게 구현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뮤' 시리즈게임의 최상위 아이템인 '대천사 무기'를 두고 벌어지는 여정을 스핀오프 형식으로 풀어 기존 시리즈들과 차별화했다.

넥슨이 6월 10일 서비스를 준비 중인 '피파모바일'도 있다. EA의 유명 타이틀 '피파'를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게임이 다. 실제 축구 선수 라이선스가 반영돼 사 실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일반모 드'와 '공격모드'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도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이 밖에 위메이드의 '미르4', 그라비 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진' 등 하반기를 겨냥한 모바일게임들도 기존 인기 IP를 기반으로 준비 중인 기대작들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oL 미드 시즌 컵 28일 개막…한·중 자존심 대결

LCK·LPL 상위 4개 팀 대항전 총상금 60만 달러…31일 결승

한국(LCK)과 중국(LPL)이 '리그오브레 전드(LoL)' 종목의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미드 시즌 컵(MSC)'이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에서 펼쳐진다. LCK와 LPL 스 프링 시즌 상위 4개 팀이 출전하는 팀 대항 전 형식의 대회로, 각 지역 스프링 우승팀이 모두참가하는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 (MSI)'이 취소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기획됐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 동안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MSI 등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나눠가지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한국과 중국의 맞대결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60만 달러다.



2020 미드 시즌 컵 조편성표

28일과 29일 치러지는 그룹 스테이지는 4개 팀으로 구성된 두 개조로 나뉘어 경기 를 펼친다. A조는 LCK 1위 T1, LPL 2위 탑 e스포츠, LPL 3위 펀플러스 피닉스, L CK 4위 담원 게이밍이다. B조는 LPL 1위 징동 게이밍, LCK 2위 젠지 e스포츠, LC K 3위 드래곤X, LPL 4위 인빅터스 게이밍이 배정됐다. 각 팀은 해당 팀이 속한 조의 다른 팀들과 단판으로 총 3경기를 치르게 된다.

T1과 펀플러스 피닉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8일에는 A조, 29일에는 B조의 경기가 진행된다. 30일 열리는 준결승전과 31일 예정된 결승전은 5전 3승제로 치러진다. 준결승은 각조 1위 팀이 상대 조의 2위 팀과대진하는 구조다. 김명근 기자

시럽 월렛 '지금 내폰 얼마?' 서비스



SK플래닛은 시럽 월렛 에서 실시간 시세 조회와 매매가 가능한 '지금 내 폰 얼마?' 서비스를 시작 한다. 지난해 9월 오픈한 금융 플랫폼 '시럽 혜택

금융'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고폰 성능 자동 점 검 솔루션으로 고객이 기기 자체 성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시 세 파악이 가능하고, 원하는 고객은 판매까지 원스톱으 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 성능 점검 솔루션과 직매입 프 로세스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는 것도 강점이다.

KT, 재난지원금 사용처 링고서비스 제공

KT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링고서비스 안내멘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링고서비스는 소상공인 전용 통화연결음 서비스다. 가게에 전화를 건 소비자에게 기존 통화연결음 대신 영업시간과 장소안내 등의 멘트를 들려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외식업체와 편의점 등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본사 소재지와 가맹점 주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KT는 고객 혼선을 줄이고 중소자영업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안내 서비스를 결정했다. KT 유선전 화를 사용하고 있고, 링고비즈프리미엄과 링고비즈플 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KT홈페이지 고객지원 메뉴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LGU+, 신한그룹 공통 메시징 사업자 선정

LG유플러스는 신한DS가 주관한 1400억 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공통 메시징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4개사의 메시지 발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LG유플러스는 메시지 발송 장비별 트래픽 자동 분배, 실시간 장애 감지 및 트래픽 관리, 문자·푸쉬 메시지 채널별 연동, 통합 통계 및 모니터링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메시징 분배 솔루션'을 구축한다. 올해 4분기부터 각 계열사 별로 솔루션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